**교제와 나눔**

**ㆍ교회당 예배:** 금요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매주일 15시 Mutterhauskirche에서

예배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16시에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주일(11월 8일)은 13시**에 예배드립니다.

**ㆍ매일성경 11,12월호:** 예배 후 앞마당에서 받아 가세요.

**ㆍ그리스도인의 생활영성:** 약 6개월에 걸친 온라인 영성 강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신청해 주세요. 매주 목요일 20시 예정(시간 조정 가능).

**ㆍ헌금:** 직접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구좌로 송금해 주세요.

**ㆍ생일:** 이미전, 김영희, 오경민, 신재용, 박종선

**\*\* 함께 기도합시다 \*\***

1)교회당 예배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운영되게 하소서.

2)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3)감염된 이들을 고쳐 주시고, 방역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지켜 주소서.

4)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5)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역대하1:1-17 월/대하2:1-18 화/대하3:1-17 수/대하4:1-22

목/대하5:1-14 금/대하6:1-11 토/대하6:12-25 일/대하6:26-42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83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11월 1일** | **11월 8일** | **11월 15일** | **11월 22일** |
| **예배기도** | 송인선 | 김종권 | 박종희 | 김혜경 |
| **말씀일기** | 백능현 | 서연주 | 김성희 | 신형만 |
| **안내위원** | 예배부 | | | |
| **헌금위원** | 우선화 | | | |
| **애찬봉사** |  |  |  |  |

**37-44호 2020년 11월 1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5: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예배: 15: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5:00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 다함께  인도자 | | |  |
| ※찬송/Gemeindelied ………...................... 29장 1절 ....................................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75번 …………….................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421장 1,3절 ………………….……… | | 다함께 |
| 기도/Gebet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찬양/Chor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 | 송인선 권사  백능현 집사  김아영 집사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요14:1-3 …..…....……………….….. |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근심하지 말라** ……….…...….....….. | |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  찬송/Gemeindelied ..….…..….……… 370장 1,4절 …....….…..….……………  봉헌/Kollekte ……………………….......................................………….....……............. | | 설교자  다 함 께  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 다함께 |
| ※주의기도/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시39편 ‘재갈을 먹이리라’ ◈**

악인을 입으로 이기려 해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다(1).

그걸 아는 시인은 입을 다물다 못해 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아픔만 더 깊어 갔다(2).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치솟는 열기를 참을 길 없어

결국 그의 입은 주님을 향한다.

인생이 한 줌 연기와 같고(5), 한 조각 그림자 같다며(6)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한다(7).

그렇다고 주님께만 입을 열고 지낼 수는 없다.

다윗이나 야고보는 공히 신앙 행위의 주요 요소로 말을 꼽는다.

말은 사실 지극히 작은 몸짓의, 행위 같지 않은 행위이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엄청나게 크다.

일상에서 침묵과 대화의 적절한 조화가 쉽지 않다.

적지 않은 경우 말을 통해 해결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들은 말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악인들은 결코 말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한편, 침묵이 가장 무서운 비수일 수 있다.

상대만이 아니라 자신을 찌르기도 하니까.

나, 분노와 헛된 자랑에는 입을 다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입을 열어야 한다.

입 단속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입을 잘 열기 위함이 아닌가?

힘들지만 시인도 입을 열어 악인을 축복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쉽사리 악인이 선인 되어 돌아오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의 근심이 더 심해지(2)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가?